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수영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투쟁

류 강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강하천이 많은 우리 나라에서 수영을 할줄 모르면 자연 개조사업과 조국보위사업을 잘할수 없다. 강과 바다를 정복하자면 강과 바다를 무서워하지 말아야 하며 그러자면 누구나 다 수영을 할줄 알아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적으로 수영을 적극 장려하여 누구나 다 수영을 할줄 알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3권 52페이지)

우리 당은 수영을 적극 장려하여 체력을 단련하며 로동과 국방에 이바지하는것을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우고 모든 군인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속에서 수영을 일상적으로 많이 하여 건강한 몸으로 혁명적으로 일하고 생활해나가도록 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 왔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무엇보다도 인민군군인들속에서 수영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열풍을 일으켜 유사시에 대처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나갔다.

우리 나라 자연지리적조건에서는 군인들이 유사시에 자기의 전투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수영을 할줄 알아야 한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도하전투를 많이 하였는데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총을 가지고 해염을 쳐 강을 건넜다. 때문에 누구나 유사시에 대처할수 있도록 수영을 배워야 하며 특히 군인들에게는 수영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군인들이 아무리 사상적각오가 높고 기묘하고 령활한 전술과 높은 사격술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수영하지 못하면 싸움을 제대로 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90년대 중엽 선군정치방식을 온 사회에 전면적으로 확립해나가시는 나날 인민군군인들속에서 수영훈련을 강화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군인들의 훈련성과를 축하해주시면서 수영훈련과 관련한 귀중한 교시를 주시고 그들을 고무해주시였다.

주체84(1995)년 8월 동해안에 위치한 어느 한 부대의 해상훈련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군인들의 수영훈련을 보아주시고나서 수영은 자기에게 제일 편리한 방법으로 하는것이 좋다고, 사람마다 체질상특성이 있으므로 군인들에게 한가지 수영방법을 배워주고 그대로 하라고 하면 안된다고, 수영을 오랜 시간 할수 있게 준비되려면 여러가지 수영방법을 체득하여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날 일반학교교육에서 기초교육으로 청소년들에게 수영을 배워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수영훈련을 더 높은 단계에서 진행하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 일일이 밝혀주시였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인민군대에서는 새로운 수영법이 구현되어 수영훈련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주체85(1996)년 7월 전군적인 보여주기에서는 인민군대안의 각급 지휘성원들과 훈련 일군들에게 새로운 수영법을 실시 동작으로 가르쳐주면서 모든 장병들을 수영의 능수로 키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취급하였다. 그후 수영훈련이 인민군대의 각 군종, 병종, 전문병부대들에서 보다 실속있게 벌어지게 되었다.

인민군부대들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튼튼한 체력은 전투력강화의 기초이며 전투승리의 믿음직한 담보이라는 정치사업이 진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인민군군인들은 높은 사상적각오를 안고 훈련을 맹렬히 하여 어떤 조건에서도 강과 호수들을 재빨리 건널수 있는 수영능력을 소유해나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력사적인 진군길에서 주체조선의 위용과 기상을 만방에 펼쳐가시면서 인민군군인들속에서 수영훈련을 강화하여 전투력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특히 인민군지휘관들이 수영의 능수가 되도록 하시고 현지에까지 나가시여 그들의 훈련을 지도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주체103(2014)년 여름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해군지휘성원들의 수영능력판정훈련은 해군부대안의 지휘관들을 그 어떤 망망대해에서도 부대를 이끌고 기어이 최고사령부의 작전전략적임무를 수행할수 있는 사상과 신념이 투철하고 육체적으로 튼튼히 단련된 지휘성원들로 준비시키며 해군부대안에 수영훈련열풍을 일으키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와 서해함대의 지휘성원들에게 오늘 진행하는 조선인민군 해군지휘성원들의 수영능력판정은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해군의 싸움준비를 더욱 완성하고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며 군대가 싸움을 잘하자면 지휘관들부터가 싸움군이 되어야 한다고, 현대전은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뿐만아니라 육체적으로 준비된 지휘관들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날 해병들은 높은 수영능력을 소유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해군지휘관들이 수영의 능수가 되어야 해병들을 이끌고 망망대해에서도 최고사령부의 전략적기도를 실현하는 해상작전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고 강조하시었다.

바다속에 뛰여든 해군지휘성원들은 강한 인내력과 의지,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하면서 평시에 편마해온 수영능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장시간에 걸쳐 지휘성원들의 수영동작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면서 그들을 고무해주시었다. 그리고 해병들이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전투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수영훈련을 제도화, 생활화하는것을 비롯하여 해군부대의 싸움준비완성과 전투력강화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조선인민군 해군지휘성원들의 수영능력판정훈련은 해군지휘성원들뿐만아니라 모든 군인들과 지휘관들속에 수영훈련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그리하여 인민군군인들은 어떤 복잡한 전투정황속에서도 자유자재로 행동하며 강한 추위와 무더위도 끄떡하지 않고 이겨낼수 있는 무쇠같은 체력을 다져나가게 되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다음으로 청소년학생들속에서 수영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고 수영을 장려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해양국의 주인공들로 튼튼히 준비해나갔다.

청소년학생들속에서 수영을 적극 장려하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중시하고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수영은 어려서부터 하는것이 좋다. 어려서부터 수영을 하면 몸이 균형적으로 발달되고 몸매가 고와질뿐아니라 인내성과 용감성, 강한 의지와 담력도 키우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오래전에 학교들에서 야외수영장을 만들어놓고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청소년학생들속에서 수영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들에서 수영교육을 잘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4(1995)년 8월 국가체육위원회(당시) 책임일군을 찾으시여 학생들에게 수영을 잘 배워줄데 대한 교시를 주시며 학생들은 늦어도 9~10살부터는 헤엄을 칠줄 알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앞으로 수영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책도 세우고 이르는 곳마다에 야외수영장도 만들어놓아 학생들이 다 수영을 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국가체육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청년동맹중앙위원회와 짜고들어 학교들에서 학생들에게 수영을 배워주도록 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교육위원회와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조직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 청소년학생들이 수영을 장려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주체85(1996)년 8월 28일에 진행된 대동강도하경기에는 수천명의 평양시안의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평양창광고등중학교(당시), 평양위성고등중학교(당시) 전교생이 참가하는 대동강도하모범출연에 이어 구역별대항경기가 있었다. 나 어린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드넓은 대동강을 단숨에 헤가르며 헤엄쳐건느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그후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책임일군으로부터 대동강도하경기정형을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모범을 따라 모든 학생들이 수영을 할줄 알게 해야 하겠다고, 청년동맹에서 청소년학생들의 대동강도하경기를 해마다 조직하는것이 좋겠다고 이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5(1996)년 9월에도 국가체육위원회 책임일군에게 평양시 청소년학생들의 대동강도하경기를 조직하였는데 학생들속에서 수영을 널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학교들에서 수영교육을 잘하여 학생들이 500m정도는 자유롭게 헤엄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관심속에 학교들에서 수영교육이 결정적으로 강화됨으로써 청소년학생들은 해양국의 주인공들로 자라날수 있게 되었으며 온 나라의 강과 바다, 호수들이 청소년학생들로 흥성거리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새 세기에도 자라나는 청소년학생들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보통 교육부문 체육교육에서 수영교육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93(2004)년 8월 군인들이 수영을 잘하자면 인민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학교에서 수영을 기본적으로 다 배워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다시금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그리하여 전국의 모든 소학교와 중학교들에서 수영장을 꾸린 정형과 그 리용실태, 수영장에 대한 물보장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물보장대책을 세우고 수영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하천과 저수지, 바다와 수로, 호수를 리용하여 수영장을 꾸리였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500m이상 수영할수 있게 하였다.

해마다 성황리에 진행되는 평양시 청소년학생들의 대동강도하경기와 7, 8월해양체육 월간에 전국의 모든 학교들에서 수영교육이 더욱 강화되였다.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훌륭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을 마련해주시려고 온갖 심혈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새 세기 수도 평양시를 비롯하여 전국 도처에 현대적인 수영장과 물놀이장들이 수많이 일떠서 수영에 대한 열의가 높아지고 대중화되여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여러 학교들을 찾으시여 학생들이 수영장을 사철 리용할수 있게 대책도 세워주시고 수영교육에 힘을 넣도록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학교들에서의 수영은 대중체육활동의 주요종목으로 되여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모든 청소년학생들이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역군들로 준비되게 되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다음으로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수영을 일상적으로 많이 하여 건강한 몸으로 혁명적으로 일하고 생활해나가는 기풍이 서게 되였다.

수영은 온몸의 힘살을 고르게 발달시키고 심장피줄계통과 호흡기계통, 소화기계통의 활동에 좋은 영향을 준다. 수영을 정상적으로 하면 폐활량이 커지고 심장의 기능도 현저히 높아진다. 수영을 하는것이 건강에 좋기때문에 세계적으로 수영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가는것이 하나의 추세로 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이 수영을 많이 하면 사회적으로 수영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세우는데도 좋다고 하시며 기관, 기업소들에서 휴식일이나 명절날을 리용하여 근로자들이 수영을 널리 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4(1995)년 9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누구나 다 수영을 할수 있게 강과 바다가에 수영장을 많이 꾸려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해당 기관들과 토론하여 수영을 할수 있게 강이나 바다가의 일정한 지점들을 정해주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에 따라 수영장들에서 물보장대책을 바로세우고 물에 대한 소독과 려과를 잘하여 언제나 맑고 깨끗한 물이 차있도록 하며 한편 출판보도물을 통하여 수영에 대한 상식을 알려주는 사업도 적극 진행되였다.

룡남산마루에 높이 솟아 빛나는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 김일성종합대학에 일떠선 수영관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사랑과 크나큰 헌신의 로고가 깃들어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김일성종합대학에 최상급의 수영관을 건설할것을 받기하시고 한해사이에만도 세차례나 수영관을 찾아주시며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거듭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김일성종합대학수영관은 교직원, 학생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시며 모든 학생들이 대학기간에 수영을 다 배우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김일성**종합대학수영관에 나오시여 조약대와 비품, 의료설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관심하시며 앞으로 수영장관리와 운영을 잘할데 대하여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한 손길아래 강성원과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비롯하여 나라의 곳곳에 훌륭한 수영관, 수영장들과 해수욕장들이 새로 꾸려져 근로자들이 수영을 마음껏 할수 있게 되였다.

주체104(2015)년 7, 8월해양체육월간에 **김일성**종합대학수영관에서는 평양시안의 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수영경기가 진행되여 위대한 장군님의 해빛같이 따사로운 사랑이 뜨겁게 이어졌으며 주체105(2016)년 7월에는 창광원의 수영관에서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 수영경기가 개막되였다. 경기들에서 선수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온 긍지를 안고 평시에 련마한 수영기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수영을 적극 장려하고 대중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건강한 몸으로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할수 있게 된데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게 되였다.

모든 군인들과 청소년학생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수영을 적극 장려하여 누구나 다 수영을 할수 있게 한 우리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해양국의 주인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수영, 대동강도하